

늙어서도 못쉬고 청년은 일 못하고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사상 첫 20대 앞질러

비정규직·질 낮은 일자리 몰려

#1. 김모(여·64·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낮 시간에 택시 운전하고 밤에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막걸리 집을 운영한다. 음식 솜씨가 있었던 김씨는 10여 년 전 막걸리 집의 문을 열었고, 입소문을 타고 제법 장사도 잘 됐다. 하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해 최근 택시 운전 시작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 특별히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김씨가 '투잡'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자녀들의 주택 구입자금을 조금이나마 보태기 위해서다.

#2. 군 입대를 위해 최근 대학교를 휴학한 이모(21·광주시 서구 양동)씨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과거 집 근처 편의점과 주유소 등 젊은 사람을 찾던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이 주로 일을 했던 주유소와 식당 업주들이 경험이 많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이직률이 낮은 노년층을 선호하고, 일을 하겠다는 60세 이상 근로자들도 많아 일자리 알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

일을 하겠다는 노년층이 늘면서 올해 2분기(4~6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들은



부양해야 할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탓이다. 또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노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60대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20대는 경기 둔화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취업자 증가가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년 2분기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2000명으로 20대 취업자 378만6000명보다 많았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4년 2분기(4~6월) 364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20대 취업자(361만4000명)를 넘어섰다. 이후 20대와 앞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분기(1~3월)엔 60세 이상 취업자(344만4000명)가 20대(366만1000명)보다 21만7000명 적었지만 2분기 들어 전세가 다시 역전됐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보다 늘어난 데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도 있다. 2분기 60세 이상 인구는 98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20대 인구는 642만1000명으로 5만2900명 늘어난 데 그쳤다.

60대 이상 인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다 보니 취업자도 60세 이상에선 18만9000명 늘어난 데 반해 20대는 8만9300명이 증가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최근 들어 60대 취업자 증가세가 가파르고 20대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경기 둔화와 빈약한 복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해 젊은이들이 갈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공기업·금융그룹 제외)을 대상으로 올해 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16개 그룹이 작년보다 신규채용 규모를 줄인다고 답했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은퇴를 하고도 자녀 뒷바라지와 가계 부채 부담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시 일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나마 일을 찾은 60대 이상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숙박·도소매업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12.3%) 증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5.46 (-1.43)
- ↓ 금리 (국고채 3년) 1.22% (-0.01)
- ↑ 코스닥 705.03 (+2.59)
- ↑ 환율 (USD) 1141.00원 (+5.50)

기아차 노조, 내일 쟁의권 없이 '파업'

금속노조 총파업 참여...사측 "법적 대응"

기아차 노조가 오는 2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회사는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기아차 노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밤 경기 광명 소하리 사업장에서 집행부 임원회의를 열고 22일에 사업장별로 4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소하리와 화성 사업장에서는 1조와 2조 근무자가 2시간씩, 광주 사업장의 경우 1조가 4시간 동안 파업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라인을 세우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3일 삼계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5차례 임단협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노조는 지난 8일 현대차그룹 공학교섭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해 전체 조합원 3만1천여명 중 투표 참가자 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아차 노조가 그룹사 공학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형사상 고발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손흥민 뛰는 '토틀넘' 후원

5년만에 축구 마케팅

금호타이어가 영국의 명문 축구구단 토트넘 홋스퍼를 2016~2017 시즌부터 공식 후원하기로 계약했다고 20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19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의 토틀넘 훈련장인 '홋스퍼 웨이'에서 이한섭 사장과 토틀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토틀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했다.

금호타이어는 토틀넘의 공식 파트너로서 홈구장인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리는 리그·컵 대회에서 LED광고, A-보드 광고, 경기 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알리게 된다.

또 토틀넘의 로고와 대표 선수들의 이미

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 대상 행사와 축구교실에 선수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각국에서 약 9억3000만 명이 시청하고 지난 시즌 중계권료만 약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흥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금호타이어는 예상했다. 이번 토틀넘 계약은 맨유 후원 이후 5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축구 마케팅을 재개한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맨유 후원 이후에도 유럽 축구리그 주요 팀들을 지속해서 후원해 왔으며 토틀넘과의 계약 다음 날인 20일(현지 시각)에는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올림피크 리옹과도 2016/2017 시즌 공식 후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비즈쿨 고교 캠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21일까지 경기도 파주 대이크스에서 전남지역 비즈쿨 고등학교 대상 '온라인(On-Line) 판로개척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비즈쿨(Biz-cool)은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매년

초·중·고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캠프에는 순천청암고와 별교고, 화순이양고 등 전남 지역 18개 비즈쿨 운영 고등학교 가운데 13개 학교가 참여했다. 소규모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30명과 담당교사,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담당자 등이 대상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보해 '지역 사랑'...광주 동구 새마을회에 발전기금

나눔 경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회(회장 임기영)와 업무 협약을 맺고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보해양조는 지난 19일 오후 동구청 지하1층 민방위 교육장에서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 김성환 동구청장, 임기영 동구 새마을회장 등 150여명의 내빈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협약은 보해양조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양조 임지선대표는 "66년을 지역과 함께 한 향토기업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정을 실천, 지역과 협력·상생해 지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더욱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이번 동구 새마을회 협약이 광주관내 4번째 새마을회 협의회 협약으로, 전년도부터 광산구, 남구, 북구 새마을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구 JC, 대한적십자사광주지부, 한국농업인광주전남연합회등 지역 단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사랑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작년 국내외 이슈가 한권에... '연합연감 2016년판' 출간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16년판'이 4월 25일 출간됐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4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2015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의 분야별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도표 등을 정리해 수록했습니다.

초점으로는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한국 현대정치에서 문민시대를 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관, 한·일 첫 정상회담과 위안부 협상 타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등을 선정해 상세하게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한 해 중요 사건·사고를 요약 정리한 일지와 각 분야별 뉴스를 체계적으로 편집했으며, 각종 현황에서는 국가별 지도도와 면적·인구·언어 등 개요를 포함해 최근 상황까지 담았습니다.

자료편에는 통계·일람, 대통령 연설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변천사, 역대 정부기관장 등 다양한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북편에는 창건 70주년을 맞이한 '북한 노동당'의 평가와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김정은 시대 등 급변하는 정세와 현황을 연합뉴스가 독점 보도하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뉴스를 인용해 각종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의 지도와 함께 나열한 북한 시·도 지리와 북한 10대뉴스, 일지, 연표는 물론 연합뉴스가 보유한 북한 주요 인물들의 주요 학력과 경력 등을 소개해 자료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2016 연합연감'은 독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료로서 가치를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 4×6배판, 총 1,408쪽, 양장본
- 가격 : 18만원